

얼마전 모일간 신문에서 「가방을 든 황제」라는 기자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칼럼은 빌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행원 한명없이 스웨터차림으로 입국해, 자신이 손수 가방을 들고 총총히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컴퓨터회사 젊은 회장의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봉건적인 관념이 지배해온 우리나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빌게이츠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빌게이츠가 오늘은 누굴 만났대”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나올 정도였다. 어린 학생들은 세계적인 컴퓨터 천재 빌게이츠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며, 미래 컴퓨터 천재를 꿈꾸기도 했고, 이제 막 워드프로세서 정도의 기능을 익히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어 일하고 있는 중년들에게는 허탈감마저 안겨주기도 했다.

빌게이츠의 2박 3일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경영인에게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 바쁘게 뛰었던 진지한 모습을, 그리고 젊은 컴퓨터 학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천재의 기발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2박 3일이었다.

그러나 빌게이츠의 2박 3일이 가져다 준 사회적 충격은 이보다 훨씬 컸다. 그는 어느새 권위주의라는, 형태의 기업문화를 바른 길로 알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현대화를 위해 달려온 그간의 변화가 단순한 외적인 변화였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들이기도 했다. 또한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썬서야 하는 우리의 허례에 찬 구시대의 모습이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지구촌 곳곳에서 최첨단 정보통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대그룹의 총수들이 권위적으로 꾸며진 독방에서 결재란에 도장을 찍는 일에 충실할 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젊은 회장은 이제 막 정보통신에 눈뜨기 시작한 한국이란 작은 나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자신의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만날테니,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 줄여달라”는 빌게이츠 비서실의 당부처럼, 그는 무수한 강연과 좌담을 통해 자신이 세워나갈 정보통신의 미래를 강변했다. 그는 엔지니어 이전에 참으로 훌륭한 영업사원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 때는 자신의 천재적인 머리가 필요했지만, 그룹의 규모로 커진 후에는 천재적인 머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영업능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빌게이츠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능력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진짜 천재였다. 자신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욱 바쁘게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업적인 감각을 지닌 싸움 전문 전투병이자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군이었다.

「빌게이츠 현상」이라 일컬을 만한 이러한 모습에 우리 기업들은 적지않은 충격과 부러움을 느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공항 쿠빈실로 들어와야만 자신의 권위가 입증된다는 우리의 문화적 습성과 허름한 옷차림에 손수 가방을 들고 공항을 들어와야 하는 미국식의 실용주의와의 비교에서 생겨나는 부러움이였다.

그것은 또한 그룹 총수의 비행기 예약을 2등석으로 잡아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서실의 당당함과 자신들의 행위에 결코 주저함이 없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이였다. 빌게이츠는 그간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들에게 부러움과 쑥스러움을 안겨주고 홀연히 떠났다. 그가 돌아간 뒤 우리 사회는 혹독한 「빌게이츠 증후군」에 시달려야 했다. 작게는 재벌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크게는 ‘우리는 안돼’ 하는 식의 자포자기의 출현이었다. 부러움은 가능성이 있을 때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만, 가능성이 없을 때는 포기라는 양면성을 가진 단어였다.

빌게이츠가 다녀간 뒤, 그에 대한 부러움을 도전으로 바꾸어내지 못한 일부는 허탈감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말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실수증의 한 과정이었다.

이제 우리는 빌게이츠 증후군에서 떨쳐나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빌게이츠를 바라보아야 한다. 기업가는 영업사원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무장하고, 영업사원은 기업가가 목표로 하는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만간에 스웨터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미국시장을 누비는 젊은 한국의 빌게이츠가 수없이 나와야 하고, 그룹의 총수가 2등석의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비서진도 없이 훌훌단신 미국의 대통령과 담판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한 명의 「빌게이츠 회장」을 우리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